

대기업 플랫폼 제쳤다

익산 다이로움 택시, 전체 택시 85% 가입·일 평균 횟수 20% 증가

수수료 0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확 낮춘 익산 다이로움 택시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대기업 플랫폼을 앞서나가고 있다.

특히 경제 효율성과 이용 편의성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면서 지역의 대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먼저 익산시는 지난 7일 기준 지역에 등록돼 있는 택시 1천413대 가운데 85%인 1천212대가 플랫폼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범운영 첫 달인 지난 6월 일 평균 6천800여건이었던 호출 횟수도 지난달

7천800여건으로 약 20% 가량 늘었다. 시범운영을 시작한 지 약 3개월만이다.

기존 지역 택시업체 서동 보석콜이 '다이로움 풀센터'로 통합해 공공택시 앱 운영을 본격화했다.

이 때문에 체계적인 풀 관리가 가능해진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경제적인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앱을 통해 지역회폐 다이로움으로 결제할 경우 페이백, 자동결제 이용 시 2%의 마일리지 적립 등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택시 기사에게 운행 시 요청사항을 미리 전달하는 승객 선호 옵션 기능을 제공하고 택시 서비스 평가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혜택과 편리한 서비스 덕분에 3개월간 다이로움 택시 누적 콜 횟수도 빠르게 늘어 현재 64만5천여회에 유통하고 있다.

다이로움 택시의 가장 큰 장점은 택시와 승객 모두 원활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다.

/익산=이재춘기자

온라인 '쇼미더마인드' 진행

익산시, 아동·청소년 나만의 마음건강 관리법 소개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 충격을 완화하고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온라인 캠페인 '쇼미더마인드'를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감정 바로 알기, 스트레스 해소법 공유와 감정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정신 건강 관리의 긍정적 이미지와 내적 근육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익산시 만6세에서 18세까지 아동 청소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오는 18일까지 진행한다. 참여 방법은 센터 홈페이지 또는 QR코드를 접속하여 나

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공유해보고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으로 나누어 우울 자기감정을 실시하면 된다.

특히 청소년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 참여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치킨모비일 교환권 30명, 편의점 5천원 교환권 100명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한다.

장승호 센터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자신의 마음 관리법을 한번 생각해보고,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의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여 아동들의 정신건강문제를 예방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의회,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펼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코로나 여파로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응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지난 8일 시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취지에서 장보기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시의원들은 역전증합시장을 방문해 어려움을 두르고 내고장 상품 홍보를 하며 시민들이 추석명절 장보기에 재래시장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상인회 관계자들과 만나 코로나19와 시민들의 소비 성향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이로사항을 청취하고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군산=김판곤기자

군산시, 9월정기분 재산세

284억원 부과

군산시는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6,536건, 284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260억원 대비 24억원 상승한 액수로, 주택(2기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 특례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공동주택가격 18.65%, 개별주택가격 22% 상승 및 신규아파트 신축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6.8% 상승으로 토지분 재산세액이 증가됐다.

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지역의 대표 금융기관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셔서 매우 감사드린다"며 "지원해주신 물품과 함께 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곳간의 선호 물품을 구입하여 삶의 질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전북은행은 당초 전통시장을 방문해 필요 물품을 전부 구입 예정이었으나, 태풍의 영향으로 나눔곳간에서 필요 한 식품 및 생필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온누리 상품권으로 전달했다.

서한국 은행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도 살리고,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도 듭는 1석 2조의 방법으로 이번 기부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눔 활동에도 앞장서는 금융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